

첫 입국 외국인 노동자 4100명 떠날듯

고용허가제 6년 시한 올해 만료

3D업종 버팀목… 대상 제한 과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6년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15일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하나둘 한국을 떠나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 농어업 등 일명 '3D' 업종을 지원하는 산업일군으로 한 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등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6년째로, 최초 입국 노동자들의 고

용시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인력은 올해 4149명, 내년 2만9975명, 2012년에는 4만4578명, 이후 매년 4만~5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귀국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조업 분야에 8600명, 농축산업 1100명, 어업 300명 등 모두 1만 명을 더 데려올 계획이다.

이들 덕분에 한국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일부나마 국제 경쟁력

가서를 발휘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올 8월말 현재 1만4131명이다. 지난 2008년 4744명(일반 4114, 특례 630), 2009년 4060명(일반 3474, 특례 586), 올해 2627명(일반 2122, 특례 505) 등이다.

이들은 제조업 821곳, 농축산업 124곳, 건설업 54곳, 어업 15곳, 서비스업 239곳 등 1263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인권단체는 "사업장 변경 제한과 취업 업종 제한 탓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손속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사각지대에 몰린다"며 "고용 허가 대신에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기본적인 노동법을 적용받게 돼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사업주 등의 없이 개인 의사만으로는 직장을 옮길 수 없고, 업종도 농축어업과 제조업으로 제한돼 있어 사업주에 의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

사회·인권단체는 "사업장 변경 제한과 취업 업종 제한 탓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손속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사각지대에 몰린다"며 "고용 허가 대신에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고용시장 활기

8월 취업자수 66만명… 전남은 고용률 3.3%P 하락

광주지역 지난달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남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호남지방계청이 15일 발표한 '2010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6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00명(1.4%)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수는 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00명(10.9%)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3.5%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5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

업자는 9만7000명으로 2만000명(-18.9%) 감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3만5000명(6.9%) 증가했다.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도 4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6%) 증가했다.

전남지역 취업자는 8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7000명(-5.2%)이나 감소했으며, 실업자수는 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나 증가했다. 고용률도 60.5%로 3.3%포인트 하락해 광주와 대조를 보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디지털영상기기 간 고속 데이터 전송 상용화

정보가전산업 광용용 SoC 기술이전 설명회

전자부품연 광주지역본부

전자부품연구원(KETI) 광주 지역본부(본부장 김세영)는 15 일 오후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광주본부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가전산업 광용용 시스템-온-칩(SoC) 기술이전 설명회'를 열었다.(사진)

'SoC'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기술집약적 반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가바이트급 멀티채널 광 송수신 기술과 광 트랜시버 접착화 기술, 광 연동 직렬화(SERDES)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소개됐다.

이 기술은 지역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정보가전산업의 핵심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이다. 특히 HDTV·셋톱박스·홈시

터 등 디지털영상기기 간 고속 데이터 전송에서 쉽게 상용화할 수 있고, 바이오 포토닉스·첨단 차량용 멀티미디어 시스템(MOST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50개 업체 60여명이 참가했으며, 설명회 뒤 기술이전 상담회도 열렸다.

KETI 광주본부는 광주지역 유일의 정보가전 전문 연구·지원기관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됐으며, 정보가전과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발전), 전기자동차 등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세영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연구원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상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자료를 공개하고, 우수 기술에 대한 기업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나들가게' 199곳 더 연다

중기청, 동네슈퍼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500억 지원도

동네 슈퍼마켓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포 나들가게 대폭 추가 개점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늘어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로 지정해달라는 지역 슈퍼마켓 업주의신청이 416건(8월기준)이나 늘어 이중 199개를 선정해 나들가게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44곳은 개점이 완료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나들가게 신청 건수가 4427건에 달해 중기청은 올해 만들기로 한 나들가게 점포 수를 2000개에서 24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500억원도 이번에 추가로 마련됐다.

정부 시행 교육·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이달 말부터 우선 지원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적으로도 나들가게 신청 건수가 4427건에 달해 중기청은 올해 만들기로 한 나들가게 점포 수를 2000개에서 24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500억원도 이번에 추가로 마련됐다.

정부 시행 교육·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 이달 말부터 우선 지원된다.

이 기술은 지역전략산업인 광산업과 정보가전산업의 핵심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이다. 특히 HDTV·셋톱박스·홈시



추석자금 방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한 직원이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본부에서 추석자금 방출을 위해 현금을 분류하고 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300억원을 시중은행에 공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 G20 정상회의
경제효과 24조 추정
삼성경제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21조5천576억~24조6천3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행사 자체의 직접적 효과는 1천23억원으로 G20 정상회의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490억원)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533억원)이다.

간접효과(21조4천553억~24조5천373억원)는 기업들의 홍보효과(1조738억~1조2천390억원) 및 수출증대 효과(18조9천587억~21조8천755억원)와 해외자금조달비용 절감효과(1조4천228억원)를 포함한다. /연합뉴스

사회책임 투자 기업
주가 수익률도 높다
코스피 보다 6.02%P ↑

사회책임투자가 앞선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회 투자책임지수(SRI)의 수익률과 코스피 수익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SRI 수익률은 14일 도입된 1년만에 62.86%가 올라, 같은 기간에 56.84% 오른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6.02%포인트나 크게 웃돌았다.

SRI는 특히 14일 장중 한때 1,641.62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1.51포인트(0.09%) 떨어진 1,628.57로 마감했다. 사회책임투자지수는 기준일인 2009년 1월2일 지수를 1,000포인트로 삼아 국내 중대형 상장기업 70개 종목을 대상으로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시가총액 기준 방식으로 산출한 지수다. /연합뉴스

전남 아파트 거래 급감

지난달 1000건 그쳐… 16개월來 최저

광주지역은 2487건 2개월 연속 증가

전남지역 아파트 거래가 뚝 떨어졌다

달 평균(1859건)보다는 33.8% 늘어났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3만 1007건으로, 지난 7월(3만2227건)보다 3.8% 줄었다. 최근 4년의 같은 달 평균(3만8천791건)보다 20.1% 적은 것이다.

15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고된 전남 아파트 거래 건수는 1021건으로, 지난해 4월 959건이 거래된 이후 16개월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 달(1995건)보다 48.8%, 지난해 같은 달(203건)보다 15.1%, 최근 4년(2006~2009년) 같은 달 평균(1104건)보다 7.5% 감소했다.

반면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8월 광주 아파트 거래 건수는 2487건으로, 7월(2400건)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910건)보다는 423건이 적었지만, 최근 4년의 같은

달 평균(1859건)보다는 33.8% 늘어났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시장이 열어붙으면서 4월 4만3975건, 5월 3만 2141건, 6월 3만454건으로 3개월 연속 줄었다가 7월 3만2227건으로 조금 늘었으나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it.mltm.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23.88 (+8.63)
코스닥지수	481.28 (-0.51)
금리(국고채 3년)	3.43% (+0.04)
원·달러 환율	1,160.90원 (-0.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불로동 구 그랜드호텔 앞
원장님 직접 강의하십니다.
원장 정 대 성
☎(062)222-3605

수원동 모아엘 가상동 103호
잉크로너 총전 및 판매, 사무실 소형네트워크공사
조립 컴퓨터 상담 및 판매
☎(062)951-8569

양산동 GS아파트 입구 맞은편, 광주은행 옆
한우, 암소, 돼지생고, 생고기, 안창살, 치마살, 꽃살
살겹살, 목살, 향정살, 가브리살, 단체예약 할인
☎070-4113-0505

본촌동 광신대학교 입구, 지산중학교 맞은편
각종 치킨 엔진, 하체, 경정비
엔진오일교환, 타이어 뱃구
☎(062)574-2840

농성동 서구청 맞은편, 광주은행 옆
흑산·칠레 흑어 도·소매
제철(선어) 민어·붕어 회, 무침전문
☎(062)366-0555

신안동 대성자동차공업사 맞은편
건물·상가·주택·썬팅시공 전문, 방탄
방탄·단열·특수필름, 경보기 도·소매
존슨하이테크 썬팅필름 전문점
☎(062)526-4154